새로운 길을 나서는 2020 / 10월 3주차

■ 영상택배 시즌2 – 네 번째 이야기 “백자 끈무늬 병”

이번 뉴스레터와 함께 전해드리는 영상택배는 국립중앙박물관 배기동 관장이 소개하는 <내가 좋아하는 소장품> 가운데 하나인 백자 끈무늬 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보물 제1060호이기도 한 이 작품은 16세기 후반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여백의 미, 자연의 미를 보여주면서도 가공하지 않은 인간의 감성이 잘 표현된 느낌을 전해주고 있는 백자 끈무늬 병과 함께 만나시는 시간 권해드립니다.

■ 발로 쓰는 유럽 풍경 - 77

- 카페 산책 6 -

로마의 스페인 광장

- 카페 그레코를 가기 전에 -

김천식(문학박사 / 한국고전문화연구원 전임 연구원)

스페인 광장에 있는 계단에는 늘 사람들이 붐빈다. 영화 '로마의 휴일' 때문이다.

유럽을 가려면 영화 몇 편쯤은 보고 가는 것이 좋다. 이는 그 나라의 문화와 역사를 아는데 도움이 되고 현장에 대한 사전 공부는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므로 여행이 즐거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국은 노팅 힐, 스코틀랜드는 브레이브 하트, 파리는 물랭루즈, 스위스는 007여왕폐하, 오스트리아는 사운드 오브 뮤직 등을 보고 가면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을 실감하게 된다.

로마도 마찬가지다. 이탈리아는 역사적으로 거대한 스케일의 나라이기 때문에 관련 영화가 수도 없이 많아서 말하기가 쉽지 않다. 유럽은 사랑과 낭만의 세계이므로 '로마의 휴일'을 보고 그 영화의 촬영지를 돌아보면 영화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영화의 장면에 스페인 광장이 나온다. 로마 한 복판에 왠 스페인 광장이냐 하면 17세기에 이곳에 스페인 대사관이 있었던 관계로 이름이 그렇게 붙여졌다.

이곳 계단에는 위의 사진처럼 언제나 사람이 붐비는데, 젊은이들 뿐 만 아니라 나이든 사람들도 많이 눈에 띈다. 아마도 영화 '로마의 휴일' 때문일 것이다. 영화에서 공주로 분한 여주인공 오드리 헵번이 세상물정 모르는 천진난만한 모습에서 매력을 느끼고 계단을 내려오는 그녀의 그 장면을 상상하며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다.

계단 앞에 보이는 하얀 대리석 조각품은 바르카차(낡은 배) 분수이다. '낡은 배'라 불리는 바르카차는 원래 테베레 강에서 와인을 운반하던 배였다. 이를 이탈리아 대표 조각가 로렌초 베르니니의 아버지 피에트로 베르니니가 제작하였다. 옛날 로마는 해마다 홍수로 도시를 휩쓸고 하였는데, 피에트로 베르니니가 홍수가 지나간 곳이 있던 조각배를 보고 영감을 얻어 만들었다고 한다. 배 안에 채워져 있는 물이 맑음도 신기하지만, 이곳까지 물을 끌어들인 로마인들의 치수 능력이 놀랍다. 이곳의 분위기는 계단이나 대리석 배로 인해 쉴 공간이 되고 있다.

눈여겨볼 만한 것은 이곳만이 아니다. 스페인 계단 주변에는 음악가 리스트, 시인 바이런을 비롯한 괴테, 안데르센 등 유럽 각국의 예술가들이 머물렀던 곳들이 있다. 스페인 계단 오른쪽 건물에는 26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영국의 시인 키츠가 살았었다. 현재 이 건물은 키츠와 셸리 두 영국 시인의 기념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이 건물 북쪽, 삼위일체 성당 뒤편에 빌라 메디치가 있다. 이 건물은 로마 주제 프랑스 아카데미 인데, 프랑스 정부로부터 상을 받은 프랑스의 예술가들이 거쳐 간 곳이다. 그러한 사실들로 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곳이 되고 있다.

Keats
Shelley
Museum

Keats
Shelley
Museum
BYRON
SALDI
SALDI
FARMACIA

이렇게 사람과 문화가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이유로 스페인 광장 주변은 세계인들을 불러 모으고 있는데, 바로 이곳에 로마의 유명한 카페 그레코가 있다. 아래 사진의 대리석 배 바르카차 분수 앞쪽의 골목에 들어서면 바로 카페 그레코가 보인다.(다음에 계속)

■ 천년 암자에 오르다

신비한 돌구멍 절 <팔공산 중암암> 세 번째 이야기
"인종의 태실을 지나"

유영봉(연구원 평의원 / 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

인종의 태실 | 조선왕실의 자취 하나가 이 깊은 산중의 숲 속에서 해바라기와 달바라기, 별바라기로 세월 가는 줄 모른다.

은해사 뒤쪽으로 포장된 도로를 따라 1km 정도 오르면, 다리를 지나자마자 '치일지'라는 사방댐이 나타난다. 치일지는 제법 큰 저수지라서 쉽게 눈에 뜨이는데, 여기가 운부암계곡과 능성재로 갈라지는 삼거리다.

이 삼거리에서 중암암에 이르는 방법은 세 가지다. 그냥 묘봉암, 중암암, 백흥암을 가리키는 큰 표지판의 안내대로 계속 포장도로를 따라가는 방법이 있고, 백흥암 앞의 주차장에서 산길을 타고 올라가 능선을 따라가기도 한다. 그리고 치일삼거리의 큰 표지판 뒤쪽에 몸을 숨긴 '인종仁宗 태실胎室 800m'의 작은 안내판을 따라 능선 길을 택할 수도 있다.

중암암의 묘미를 제대로 맛보기 위해서는 능선에 얹힌 등산로를 권하고 싶다. 묘봉암 계곡을 따라가는 포장도로는 다소 편안한데 반해서 밋밋하고 지루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경사 급한 포장도로가 주는 무관심은 견디기 어렵다.

인종 태실을 향해서 능선에 오르자, 거의 45도 경사의 가파른 산길이 느닷없이 나타난다. 태실까지 오르는 800m의 길은 턱까지 차오르는 가쁜 숨과 인내를 요구한다. 지프차 한 대는 너끈하게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넓은 길이라 해도 가파름 때문에 넉넉함을 느끼기가 어렵다. 발끝에서 먼지가 자욱하게 푸석거린다.

인종의 태실은 거친 숨결을 풀어 놓기에 알맞은 장소다. 제왕의 태실답게 너른 터를 차지하고 평안하게 하늘을 맞이한다. 태실의 둘레 돌들은 대부분 새로 교체되었기에 새하얗다. 기존의 둘레 돌들은 소임을 다하느라 지쳐 까매진 얼굴로 뒤쪽 한 모퉁이에 쌓였다. 오랜 세월 스치고 지나간 바람과 별님과 달님과의 추억을 되돌아보면서, 이제 마른 햇살과 지나가는 빗발에 몸을 내맡기고 편안하게 누웠다.

가뜬해진 발걸음은 다시 힘든 능선 길을 타야 한다. 그러나 끊임없이 이어지는 소나무 군락이 자못 위로가 된다. 쌉쌀한 송진 내음이 제법 향긋해서'극락굴'을 통해'돌구멍절'로 향하는 환희심을 불러일으킨다. 능선 길은 가파른 오르내림이지만 한여름의 굵은 땀방울마저 보람으로 느껴진다. 한 줌의 바람이 소중하고 새소리가 정답게 등장하는 산길이다. 멀리 관봉 위로 우뚝 앉아 계신 갓바위 부처님의 형상이 아스라이 보이기에 위로가 되는데, '건들바위'까지는 서너 번쯤 쉬어야 한다.

다음 회는 <팔공산 중암암> 네 번째 이야기 "건들바위와 만년송, 삼인암"으로 여러분 곁을 찾아오겠습니다.